

교육공동체 나다
2020년 겨울

방향성특강

CONNECTED

참가안내

초등부 인권 고민하는 사람이 5강

★ 어린이의 일상에서 시작하는 인권에 대한 질문과 토론

중등부 철학 레디 플레이어 원 : 놀이가 된 인문학 5강

★ 놀이를 통해 들여다보는 인문학의 세계

중고등부 정치 민주주의 학교 : 민주주의는 □ 이다 5강

★ 책 속에 박제된 민주주의를 현실로 소환하라!

중고등부 인문학 입문 인문학, 세계를 보는 창 5강

★ 나다의 인문학 강좌가 처음인 청소년들을 초대합니다

고등부 페미니즘 Go Go 페미걸스! 5강

★ 걸페미니스트로 살아가기 위해 분투 중인 서로를 만나다

고등부 문화 그것, 보이지 않는 공포 : 영화라는 미궁 속으로 5강

★ 영화적 상징의 라비린토스를 함께 헤쳐 나가는 인문학 원정대



교육공동체 나다 2020년 겨울특강 “CONNECTED” 기획 소개 및 진행 안내

1. 초대말씀

인문학은 도구입니다. 인간이 인간과 함께 살아가기 위하여 만든 수많은 도구 중의 하나입니다. 삽처럼 솔처럼 집처럼 손에 잡히고 만져지는 도구는 아니지만, 인문학 역시 인간에게 꼭 필요한 도구 중의 하나입니다.

세상에는 사람을 해치거나 괴롭히려고 만든 도구도 있습니다. 사실 어떤 도구든 쓰이기에 따라서는 독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문학 역시 나쁜 도구로 사용되었던 역사를 찾아보기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인문학을 사람과 사람 사이를 이어주는 유용한 도구라고 여전히 믿고 있습니다. 인간이 서로에게 상처 주지 않고 사랑하며 살아가려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 떠다니는 수많은 기호를 읽어내기 위한 수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당신과 나를 이어주는 기호의 무리는 때로 정치가 되고 때로 문화가 되어 우리의 마음을 휘두릅니다. 마냥 휘둘리지 않기 위해서 때로는 찬찬히 서로의 마음을 살피는 공부의 시간을 가져야만 합니다.



당신과 나, 우리는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희미하게만 느껴지는 연결의 끈을 조금은 더 뚜렷하게 인식하고 부여잡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이번 겨울 우리가 만날 자리에서는 또 어떤 인연의 끈이 서로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2. 개설 강좌(강좌가 두 곳에서 진행됩니다. 신청 전 꼭 확인해 주세요!)

[초등부 인권] 고민하는 자람이 (5강)

- ★ 어린이의 일상에서 시작하는 인권에 대한 질문과 토론
- ▲ 참가자 12~13세 △ 일시 2020년 1월 13~17일, 오전 10~12시
- ▲ 장소 : 교육공동체 나다(6호선 마포구청역)

[중등부 철학] 레디 플레이어 원 : 놀이가 된 인문학 (5강)

- ★ 놀이를 통해 들여다보는 인문학의 세계
- ▲ 참가자 14~16세 △ 일시 2020년 1월 13~17일, 오후 3시 30분~5시 30분
- ▲ 장소 : 전교조 서울지부(3호선 독립문역)

[중고등부 정치] 민주주의 학교 : 민주주의는 □□이다 (5강)

- ★ 책 속에 박제된 민주주의를 현실로 소환하라!
- ▲ 참가자 14~19세 △ 일시 2020년 1월 13~17일, 오후 1시~3시
- ▲ 장소 : 전교조 서울지부(3호선 독립문역)

[중고등부 인문학 입문] 인문학, 세계를 보는 창 (5강)

- ★ 나다의 인문학 강좌가 처음인 청소년들을 초대합니다
- ▲ 참가자 14~19세 △ 일시 2020년 1월 13~17일, 오전 10시~12시
- ▲ 장소 : 전교조 서울지부(3호선 독립문역)

[고등부 페미니즘] Go Go 페미걸스! (5강)

- ★ 걸페미니스트로 살아가기 위해 분투 중인 서로를 만나다
- △ 참가자 17~19세 △ 일시 2020년 1월 13~17일, 오후 1시~3시
- ▲ 장소 : 교육공동체 나다(6호선 마포구청역)

[고등부 문화] 그것, 보이지 않는 공포 : 영화라는 미궁 속으로 (5강)

- ★ 영화적 상징의 라비린토스를 함께 헤쳐 나가는 인문학 원정대
- △ 참가자 17~19세 △ 일시 2020년 1월 13~17일, 오후 3시 30분~5시 30분
- ▲ 장소 : 교육공동체 나다(6호선 마포구청역)

3. 강의 시간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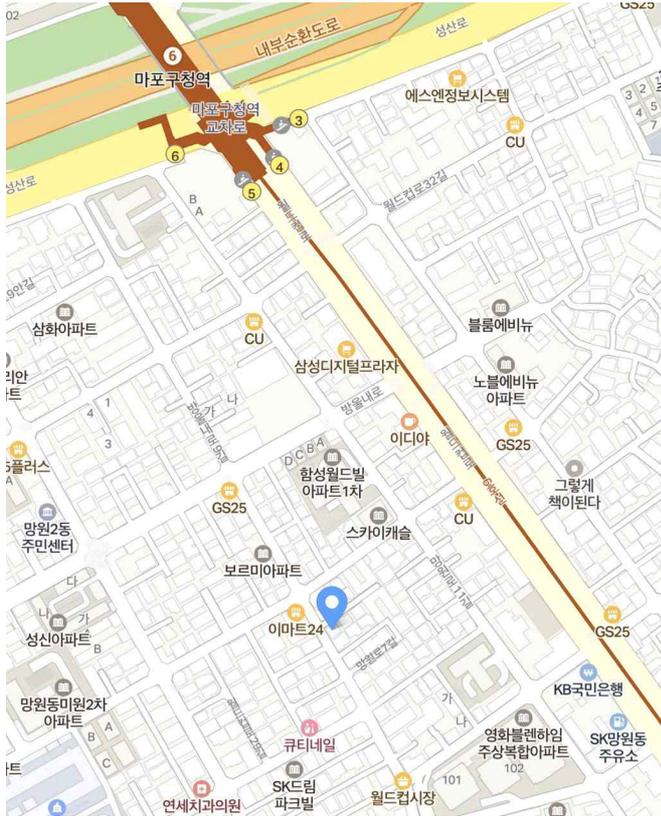
장소 및 시간	교육공동체 나다
오전 10:00~12:00	초등부 인권 “고민하는 자람이”
오후 1:00~3:00	고등부 페미니즘 “Go Go 페미걸스!”
오후 3:30~5:30	고등부 문화 “그것, 보이지 않는 공포 : 영화라는 미궁 속으로”
장소 및 시간	전교조 서울지부
오전 10:00~12:00	중고등부 인문학 입문 “인문학, 세계를 보는 창”
오후 1:00~3:00	중고등부 정치 “민주주의 학교 : 민주주의는 □□이다”
오후 3:30~5:30	중등부 철학 “레디 플레이어 원 : 놀이가 된 인문학”

4. 참가 신청

- 개강 : 2020년 1월 13일
- 접수 : 2019년 11월 30일부터 선착순 마감
- 장소 : 전교조 서울지부 2층(3호선 독립문역 도보 5분, 서울시 종로구 송월길 159, 2층)
교육공동체 나다(6호선 마포구청역 도보 7분, 서울시 마포구 망원로 7길 44, 3층)
- 정원 : 모듬별 10명
- 강좌후원금 : 강좌 1종 10만원(회원 20% 할인, 납부예외 문의)
- 계좌 : 국민은행 762302-04-169524 임성민(교육공동체 나다)
- 문의/신청 : <http://nada.jinbo.net> 방학특강 게시판, 02-324-0148, 010-7133-2305
- 후원 : 민들레출판사, 오늘의 교육,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

5. 강좌장소 오시는 길

▲ 교육공동체 나다(서울 마포구 망원로 7길 44 3층, 6호선 마포구청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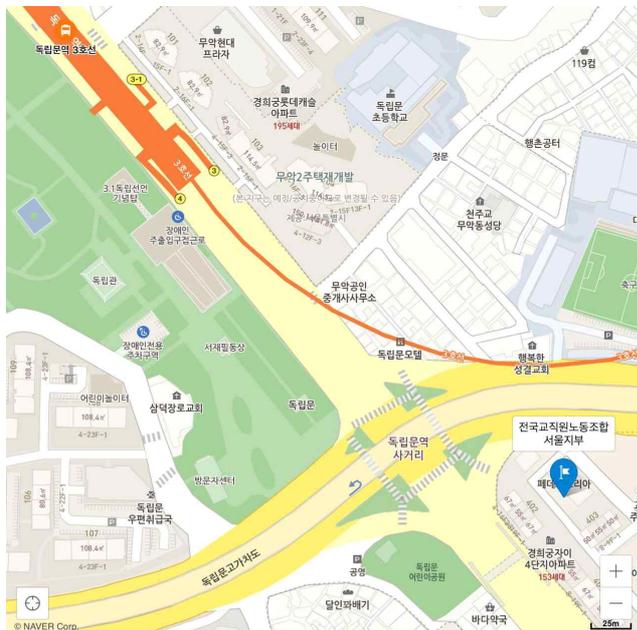
① 마포구청역 5번 출구▶망원역 방향으로 직진 260m 정도 직진하세요.

② “마포 소금구이”와 편의점 “CU(씨유)” 사이 골목으로 우회전 한 후 170m 정도 직진하세요.

③ 편의점 "이마트24"에서 좌회전하세요.

④ 좌회전 하면 바로 보이는 “연세부동산” 노란색 간판이 달린 붉은색 벽돌집 3층으로 오시면 됩니다! (건물 왼편에 입구)

▲ 전교조 서울지부 2층(서울 종로구 송월길 159 2층, 3호선 독립문역)



① 독립문역 3번 출구▶나온 방향으로 직진하세요.

② 길 끝에서 고가 밑 횡단보도를 통해 길을 건너 후 왼쪽으로 돌아가시면 전교조 서울지부가 위치한 건물이 보입니다.

③ 그 건물 2층으로 오시면 되요! (현대자동차 매장을 지나면 건물입구가 있습니다)

교육공동체 나다 2020년 겨울특강 “CONNECTED” 강좌별 소개

인권 초등	고민하는 사람이(5강)
	★ 어린이의 일상에 찾아온 인권에 대한 질문과 토론
참가자	12~13세 초등부 청소년
일시 및 장소	2020년 1월 13~17일, 오전 10~12시, 교육공동체 나다

학교에서 혹은 다른 곳에서 “인권”이란 말을 들어본 적이 있나요? “사람이라면 누구나 보장받아야 할 당연한 권리”라는 뜻의 “인권”하지만 아직 이 단어가 낯설게만 여겨지는 사람도 많을 거예요. 그 이유는 이 당연한 권리를 누리지 못하는 있는 사람들이 지금도 많기 때문 아닐까요?

그렇다면 어린이라고 불리는 우리는 어떨까요. 혹시 자신의 인권을 이야기하고 지켜낼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는 것 같나요? 안타깝게도 세상에는 이 질문에 대해 “예”보다는 “아니오”대답하는 어린이들이 훨씬 많아요.

여기 우리들의 인권을 이야기하는 자리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서 필요한 재료는 각자가 보내고 있는 평범한 일상이에요. 그 속에 숨어있는 인권에 대한 질문들로 이번에도 신나게 수다를 떨어봐요. 질문을 찾아내기는 어렵지 않지만, 찾아내고 나면 우리의 삶은 그전에는 몰랐던 “자유”를 만나게 될 거예요.

.....

1강_ 요즘 어린 것들은

‘요즘 어린 것들은 쫓쫓...’이라거나 ‘어린이가 버릇없이...’하는 어른들의 말을 들어본 적이 있나요? 난 예의 바른 어린이라서 그런 적이 없다고요? 아, 그렇다면 혹시 어리다는 이유만으로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일을 당해본 적은 없나요? 난 잘못된 게 없는데 어리다는 이유로 욕을 먹었다든지 말이에요. 하지만 여러분이 모르고 있는 사실이 하나 있어요. 아무리 부당하다고 느끼더라도 어른에 대한 예의는 꼭 지켜야 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꼭 참아야 하는 거랍니다~ 아니라고요? 이런 요즘 어린 것들은...!!

2강_ 사람의 사생활

어른들은 우리의 사생활에 관심이 많아요. 일기장을 검사하기도 하고, 방문을 노크도 없이 열어보거나, 여러분이 없을 때 책상을 뒤져보기도 하는 걸 보면 말이에요. 가끔 항의도 해보지만 어른들은 여러분을 사랑하고 걱정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라고 말하곤 하죠. 어때요? 솔직히 조금 너무하기는 하지만 어린 여러분을 위한 당연한 관심일까요, 아니면 명백한 사생활 침해일까요?

3강_ 코릴라 이야기

아이린, 송중기, 공유, 썬위. 이 사람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다들 예쁘다, 잘생겼다고 말하는 사람들이에요. 세상에는 왜 저렇게 멋진 사람들이 많은 걸까요? 분명 가족들은 내가 세상에서 제일 예쁘다고 했는데 TV를 보면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얼굴이 전부가 아니고 외모지상주의는 나쁜 거라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예쁜 애들이 더 사랑받는 것 같은 기분은 내 착각인 걸까요?

4강_ 텅 빈 놀이터

“노는 게 제일 좋아~ 친구들 모여라!” 여러분 중 이 노래를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을 거예요. 어른들도 곧잘 따라 흥얼거리는 이 노래의 매력은 놀고 싶은 우리의 속마음을 대변하고 있기 때문인 것 같아요. 학교 가랴 학원 가랴 놀 시간도 없고 친구들과 만날 시간도 없는 우리. 하나 남은 즐거움인 게임마저 맘껏 하지도 못해요ㅠㅠ. 이제 참지 말고 어른들에게 속 시원히 소리쳐 볼까요? 우리에게 놀 권리, 게임할 권리를 보장하라!

5강_ 이상한 학급회의

제 ○회 학급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선생님께 경례~! “너무 청소를 열심히 안 하는 것 같습니다. 다들 더 열심히 청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수업 시간에 너무 떠들어서 수업에 집중할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떠드는 사람은 교실 뒤로 나가서 서 있기로 합시다.” 아니 대체 이 학급회의는 누가 하고 있는 걸까요? 대체 누가 진짜로 청소를 하고 싶은 걸까요? 혹시 학생으로 분장한 선생님이 이야기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철학 중등

레디 플레이어 원 : 놀이가 된 인문학(5강)

★ 놀이를 통해 들여다보는 인문학의 세계

참가자	14~16세 중등부 청소년
일시 및 장소	2020년 1월 13~17일, 오후 3시 30분~5시 30분, 전교조 서울지부

사람들은 인문학하면 으레 책상에 앉아 머릿속에 이론과 지식을 집어넣는 광경을 떠올립니다. 그래서 지루하고 재미없을 것 같다는 인상이 지워지지 않는지 나다의 인문학 강좌를 처음 접하는 청소년들의 표정에서는 즐거움에 대한 기대보다는 지루함에 대한 걱정을 더 많이 읽을 수 있습니다. (물론 대다수는 시작과 함께 그 걱정을 많이 덜어내는 것 같지만요!)

하지만 복잡한 이론과 지식만으로 인문학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인문학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를 이해하는 과정이자 공부라면 그것은 놀이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단순히 인문학 공부 안에 약간의 놀이를 접목시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모든 놀이의 규칙과 재미에는 그것이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이 세계의 모습이 투영되어 있고, 우리가 놀이에 흠뻑 빠져 즐기는 것 자체가 세상을 체득해 나가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 세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정말 열심히(?) 놀아야 할지도 모릅니다. 이번 겨울, 나다에서 준비한 5가지 놀이를 함께 해보도록 해요.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는 새 놀이 속에 숨겨진 그 무엇에 한 발 더 다가서 있을 거예요. 머리로 이해하는 인문학이 아닌, 직접 뛰어들어 어느샌가 몸으로 익히는 인문학이라니, 궁금하지 않나요? 그렇다면 어서 와요, 그리고 함께 놀아봅시다!

.....

1강_ 배틀로얄 : 나는 왜 친구를 죽였나

[규칙 : 반경 10km의 무인도에서 각자의 무기를 가지고 서로를 죽여야 함. 제한 시간은 3일, 오직 한 사람만이 집에 돌아갈 수 있으며, 만약 3일이 지난 후에도 우승자가 가려지지 않을 경우 전원 사살.]

만약 당신과 친구들이 이런 게임을 제안 받는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니, 게임에 불참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면 그래서 억지로 참여해야 한다면 어떤 선택을 하실 건가요. 당신은 과연 친구에게 무기를 들이댈 수 있을까요?

2강_ 마피아게임 : 당신은 운명을 믿으시나요?

인터넷에 수없이 검색되는 별자리, 사주, 점 같은 것들을 보노라면 사람들은 자신의 운명에 참 관심이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당신은 운명 따위 안 믿는다고요? 그런데 어떡하죠. 마피아게임에서 밤이 왔을 때 참가자의 운명이 정해지는 것처럼 우리의 운명도 그렇게 결정되어 있는걸요. 더욱 답답하고 무서운 사실은 누가 왜 우리의 운명을 결정하는지조차 모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현실에서 우리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은 과연 누구일까요?

3강_ 랜덤박스 : 0.1%의 확률에 매혹된 이유

대다수 온라인게임의 밥줄인 확률형 아이템(랜덤박스)은 꽤 오래전부터 조롱과 비난의 대상이었습니다. 사람들의 주머니를 터는 것으로도 모자라 심한 경우 누군가의 삶을 송두리째 파괴하기까지 하니깐요. 그런데 참 이상합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원하는 아이템이 나올 확률이 사실상 제로에 가깝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래서 손가락질하고 욕하면서도 왜 또 거기에 빠져 상자를 열고 있는 걸까요. 로또를 굶듯 0.1%의 확률에 매달리는 것일까요, 아니면 다른 무언가에 빠져든 걸까요. 그 답을 찾기 위해 우리도 그 확률에 한 번 도전해 봅시다!

4강_ 진실게임 : 진실과 거짓은 무엇으로 결정되는가

사람들은 진실게임을 통해 서로의 비밀을 공유하곤 합니다. 하지만 상대방의 말이 정말 진실이라는 걸 어떻게 믿을 수 있죠? 별칙을 걸거나 표정을 잘 살펴보면 알 수 있다고요? 만약 말하는 사람도 솔직하다고 생각하면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거짓말을 하고 있다면요? 분명한 것은 진실을 결정짓는 데는 우리가 모르는 또 다른 힘이 개입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아리송한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 또 다른 힘이 무엇인지 함께 찾아봅시다.

5강_ 왕좌의 게임 : 그 자리에는 무엇이 있길래

난이도나 내용에서 조금씩 차이가 있을 뿐, 사람들이 좋아하는 상당수의 놀이는 끊임없는 권력 다툼과 그 과정에서 권력을 잡아나가는 데 재미를 느끼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그 안에서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평소보다 잔혹하게 또 신나게 힘을 휘두르곤 합니다. 우리는 왜 힘을 가지고 싶어 할까요? 그 자리에 간 당신은 그 힘을 어떻게 사용하게 될까요? 그 자리는 과연 당신을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 있을까요?■

정치 중고등	민주주의 학교 : 민주주의는 <input type="checkbox"/>이다(5강)
	★ 책 속에 박제된 민주주의를 현실로 소환하라!
참가자	14~19세 중고등부 청소년
일시 및 장소	2020년 1월 13~17일, 오후 1~3시, 전교조 서울지부
특이사항	중등부와 고등부 청소년 모두 참가하실 수 있습니다. 10대 중후반의 청소년들이 공감할 화제로 접근하므로 나이차나 난이도 등을 걱정하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불과 몇 년 전, 대한민국은 거리를 가득 메운 수많은 촛불로 뜨거웠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은 불의한 정권을 끌어내렸고 시민의 힘으로 민주주의를 지켜냈다고 환호했습니다. 이후 세상은 어떻게 변했을까요. 사람들은 어쩌면 촛불 이후 민주주의가 과거보다는 더 당연한 상식으로 여겨지는 세상이 되었다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한국 사회는, 특히나 청소년들에게는 지금도 그리 민주적인 곳이 아닙니다. 과거나 지금이나 학교는 민주주의의 내용만을 암기시킬 뿐 어떻게 민주주의를 실천할 수 있을지는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민주적인 시민으로 살아가야 한다고 하지만, 어른들은 아직 어리다는 이유로 청소년의 권리를 통제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정의롭지 못한 것들에 대한 침묵을 강요하는 사회가 과연 얼마나 민주적일지, 설사 어느 정도 민주화됐다고 하더라도 언제 또 모래성처럼 무너질지 알 수 없는 일입니다.

또한 우리가 간과하기 쉬운 사실은 민주주의가 투표권 같은 형식이나 제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민주주의는 나와 누군가의 관계에도 필요하고, 더 넓게는 이 사회에서 맺고 있는 모든 관계에도 필요합니다. 사회가 제아무리 제도적인 장치를 갖추고 있다 한들 사람 간의 관계가 민주적이지 않다면 일상 역시 민주적일 수는 없습니다. 실제로 청소년은 사회 곳곳에서 그런 경험을 흔하게 하지 않나요. 결국 민주주의란 단순한 형식과 제도를 넘어 나의 그리고 우리 모두의 삶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침묵하고 순응하고 기다리는 것만으로 변화는 일어나지 않으며, 기다린다고 민주주의에 동참할 자격이 생겨나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 이대로도 우리는 민주주의를 겪고 배우며 살아갈 힘이 충분히 있습니다. 다만 함께 할 기회를 빼앗겼을 뿐이지요. 빼앗겼던 목소리를 되찾으려는 시도가 어쩌면 그리 어렵지 않은 일일지도 모릅니다. 울겨울 딱딱한 교과서 속 민주주의를 내 삶으로 가져오는 떠들썩한 정치 수다판에서 여러분과 그 출발을 함께해 보려 합니다.

.....

1강_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 민주주의란 무엇인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시청에서 광화문에서 울려 퍼지는 노래 가사로 더 익숙할 수도 있는 이 문장은 사실 대한민국의 헌법 1조의 내용입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민주공화국이라는 건 대체 무엇일까요? 민주란 무엇이고 공화국은 무엇일까요? 그 의미가 뭐길래 왕이나 대통령에게나 있을 법한 권력이라는 무시무시한 힘이 우리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장담하는 걸까요? 노래를 따라 부르면서 한 번 쯤 이런 궁금증을 떠올렸다면 당신은 이미 충분히 민주공화국의 시민입니다.

2강_ 5천만 가지의 주장이 나오면 결정은 언제 해? : 반장은 필요하다 vs 불필요하다

5천만의 시민이 모두 모여 어떤 일을 결정할 수 없기에 우리는 대표를 뽑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국회의원이나 대통령 선거에 나온 후보들이 우리를 위해 일할 것이라고 믿지 않습니다. 번지르르한 공약이 실현될 거라는 기대도 크지 않습니다. 어차피 저들의 목적은 국민의 행복이 아닐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지요.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말하는 선거가 결국 거짓말쟁이를 뽑기 위한 것이라면, 우리는 왜 투표를 해야 하는 걸까요?

3강_ 다수의 정의롭지 못한 결정도 받아들여야 할까? : 다수결은 민주적인가 vs 아닌가

흔히 사람들은 민주주의의 반대말로 독재를 떠올립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오로지 권력자의 뜻대로만 움직이는 것을 민주주의는 결코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절대적인 다수가 히틀러 같은 독재자를 지도자로 선택했다면 그것도 민주적인 선택이라고 볼 수 있는 걸까요? 실제 우리는 몇 년 전 지도자를 잘못 선택한 대가를 톡톡히 치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한 번쯤은 우리가 민주적이라고 믿고 있는 제도에 의문을 던져볼 만도 합니다. 민주주의는 정말로 무지한 다수의 어리석은 선택도 감수해야 하는 걸까요?

4강_ 청소년도 투표할 자격이 있을까? : 중학생도 투표할 수 있다 vs 없다

고대 그리스에서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은 모든 시민이었지만, 그 시민에는 노예와 여성이 빠져있었습니다. 근대로 넘어온 이후에도 부유층 백인 남성에게만 주어졌던 투표권은 투쟁의 과정을 통해 노동자 백인 남성에게, 흑인 남성에게, 여성에게로 넓어지는 과정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시민이 투표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21세기에 아직도 투표권을 얻지 못한 존재들이 있습니다. 바로 청소년, 당신입니다. 다행히(?) 투표권 연령을 낮추며 청소년들의 정치 참여를 인정해야 한다는 이야기도 나오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언젠가 참정

권에 대한 나이 제한이 사라져 버린다면, 8살의 대통령 후보가 등장한다면 어떨까요. 당신은 초등학생에게 이 나라의 운명을 걸 수 있을 것 같나요?

5강_ 청소년, 다시 광장에 서다 : 정치적 힘을 가진 존재가 된다는 것

한국 현대사에 남아있는 굵직한 촛불집회에서 가장 먼저 촛불을 들고 나온 것은 다름 아닌 청소년들이었습니다. 독립운동에도, 민주화운동에도 학생들은 언제나 빠지지 않는 주체였습니다. 하지만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광장에 모인 사람들은 시위에 참여한 청소년들에게 충고합니다. “자, 이제 늦었으니까 너희는 들어가렴! 나머지는 어른들이 싸워줄게!” 이렇게 밀려난 청소년들은 목소리를 잃어버리고 다시 일상의 밀실 속으로 숨어들어갑니다. 청소년들이 광장에서 시위의 액세서리가 아니라 정치적 주체가 되지 않는다면 여전히 민주주의는 반쪽짜리일 수밖에 없습니다.■

입문 중고등	인문학, 세계를 보는 창(5강) ★ 나다의 인문학 강좌가 처음인 분들을 초대합니다
참가자	14~19세 중고등부 청소년
일시 및 장소	2020년 1월 13~17일, 오전 10~12시, 전교조 서울지부
특이사항	중등부와 고등부 청소년 모두 참가하실 수 있습니다. 10대 중후반의 청소년들이 공감할 화제로 접근하므로 나이차나 난이도 등을 걱정하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인문학은 영어로 ‘humanities’라고 쓰는데 이 단어는 라틴어의 ‘humanitas(인간다움)’에서 온 말입니다. ‘인간다움’에 대한 학문, 그것이 인문학에 대한 다소 투박하긴 하지만 적절한 정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이 인간을 대상으로 연구를 한다는 것은 ‘인간=인간’이라는 동일률을 벗어나야만 가능합니다. 자신을 대상화한다는 것, 이것이 바로 인문학적 소양의 출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에 비친 자신만 몰라본 게 아니라 물이라는 물질이 가지는 속성도 이해하지 못해서 죽음을 맞은 나르시스처럼 자신을 타자화할 수 없는 사람은 나 아닌 다른 대상들 역시 제대로 이해하기 힘듭니다. 대상과 대상에 대한 생각은 엄밀히 말하면 절대로 일치할 수가 없으며 끊임없이 그 거리를 좁혀가는 과정이 사고의 깊이를 더해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거리를 좁혀나가기 이전에 그 거리를 의식하는 것, 즉 ‘거리두기’가 앞서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문학적 사고는 나로부터 대상으로부터 세계로부터의 ‘거리두기’의 연속입니다. 인문학적 사고가 어떤 공부든 기본이 되어야하는 이유는 세계에 대한 기존의 판단에 대해 끊임없이 거리를 두는 태도 없이는 학문적인 성취와 발전이란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의 공부에, 특히 제도 교육을 통해 배우는 공부에 ‘거리두기’라는 것이 존재할까요? 인문학적 사고가 실종된 공부의 과정은 공부라고 부르기도 부끄러울 정도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나다에서 인문학 강좌를 처음 접한 분들을 위해서 준비된 것입니다. 간단히 말해 인문학적으로 세상을 낯설게 바라보는 연습인 셈입니다. 그 연습의 결과가 여러분들을 조금이라도 불편하게 만들었으면 하는 것이 강좌를 준비하는 입장에서 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불편함을 극복하기 위한 소통과 싸움의 흔적이 강좌를 마친 자리와 강좌에 참가한 모두의 마음에 고스란히 남아있었으면 합니다.

.....

1강_ 은유, 거리두기, 그리고 인문학

아이들이 문학을 싫어하는 것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눈을 간지럽게 만드는 화려한 영상은 굳이 활자를 통해 이미지를 상상해야하는 번거로움을 없애버렸습니다. 딱 짜인 아이들의 일과는 문학을 읽어낼 수 있는 최소한의 여유조차 앗아갔습니다. 그리고 문학을 읽어낼 수 있는 최소한의 가능성인 문학의 언어를 가르치려 하지 않습니다.

문학의 언어는 ‘은유’라는 글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글자를 모르는 아이에게 문학책을 던져 준다는 것은 외국어를 모르는 아이에게 번역을 시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왜 우리 사회는 문학의 가나다를 가르치지 않는 사회가 되었을까요? 혹 그 언어로 읽을 수 있는 무언가를 숨기고 싶은 것은 아닐까요?

2강_ 우리는 왜 꿈꾸지 않는가? : 인문학적 상상력을 위하여

꼬마 적에 우리는 참 많은 것을 꿈꾸었습니다. 때로는 비현실적이라고 할지라도 온갖 멋지게 보이는 것들은 모두 꿈꾸었지요. 그러나 그런 꿈들은 세월이 지나면서 하나씩 하나씩 기억 속에조차 지워져 갑니다. 그리고 철이 들게 되면 좀 더 현실적인 꿈들을 꾸게 됩니다. 그러나 현실에 맞춰진 꿈, 누군가에게 강제된 꿈도 꿈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우리는 자유를 꿈꾸지 않습니다. 자유는, 자유를 향한 열망은 때로 우리를 심각하게 자유롭지 못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조직과 구속을 꿈꾸며, 평등을 멸시하고 자유롭지 않기를 꿈꿉니다. 그래서 우리는 꿈꿀 자유도 잃어버립니다. 어쩌면 지금은 잃어버린 꿈의 마지막 조각을 인문학적 상상력을 통해 만나봅니다.

3강_ 대중문화, 가린 것을 벗기고 숨긴 것을 드러내다

한국 사회에서 청소년들에게 대중문화를 제한하는 것은 매우 일반적인 일입니다. 대중문화가 문화 일반의 영역만큼 (어떤 의미로는 그 이상으로) 넓어진 지금 그것을 얼마나 어떻게 제한한다는 것인지 애매하기도 하지만, 사실 제한의 근거도 빈약하기 그지없습니다. 권위를 통한 강제적인 단절은 반감(反感)까지 더해진 욕망을 낳을 수도 있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조심스런 접근과 건강한 거리두기를 이끌어내는 것이며 그를 통해 대중문화의 전혀 새로운 재미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대중문화는 우리의 삶을 거울처럼 비춰줄 수 있는 가장 가까운 교재일지도 모릅니다.

4강_ 광고, 자본주의의 전도사

우리는 수많은 광고를 접하고 살지만 광고가 우리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키는 지 구체적으로 느끼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기업이 비싼 돈을 들여 최고의 스타를 섭외해서 광고를 제작하고 온갖 미디어를 통해 노출시키는 데는 분명히 어떤 이득이 있기 때문이겠죠. 지금도 광고는 알듯 모를 듯 애매모호한 이미지와 문구로 소비자들의 마음에 소비의 욕망을 불러일으킵니다. 왜 주부들은 사지도 못할 고급 냉장고에 마음을 빼앗기는지, 왜 아이들은 아무 쓸모도 없는 게임 아이템에 눈을 빼앗기는지, 그 비밀을 모른다면 우리는 영원히 자본의 노예로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5강_ 이상한 나라의 네오, 매트릭스에서 길을 잃다

“빨간 약 줄까, 파란 약 줄까?” 좀 으스스하지만 옛날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아는 SF 영화의 대사이기도 하지만, 그것만은 또 아닙니다. 당신의 의식이 깨어있다면, 언젠가 한번쯤은 모비어스가 나타나 속삭였을 법한 물음... 여러분은 자신이 살고 있는 현실이 진짜라고 믿으세요? 혹 진짜가 아니라면 진짜 현실은 어떤 모습을 하고 있을까요? <매트릭스>는 미래 사회에 대한 경고가 아니라 지금 여기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이 가상이라는 적나라한 메시지입니다.■

페미니즘 고등

Go Go 페미걸스!(5강)

★ 걸페미니스트로 살아가기 위해 분투 중인 서로를 만나다

참가자	17~19세 고등부 청소년
일시 및 장소	2020년 1월 13~17일, 오후 1~3시, 교육공동체 나다

2019년 하반기, 스스로 세상을 등진 두 여성을 바라보며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상이 가하는 폭력에 맞서고 버티기에는 누군가의 삶을 너무나 함부로 대하는 세상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들이 겪은 폭력 중 많은 부분은 다른 수많은 여성에게 가해지는 그것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왜 이토록 살아남기 힘든 세상에 태어난 걸까요? 그래서 바라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소녀들이, 여성들이, 우리가 무사히 살아남기를.

영화 <페미걸스>는 다섯 명의 10대 여성의 이야기를 담담히 보여줍니다. 케냐, 페루, 요르단, 방글라데시 그리고 인도에 사는 이 소녀들은 서로 다른 곳에서 다른 언어를 쓰며 살아가지만, 자신이 속한 곳의 문제에 맞서, 여성으로 살아가기 위해 어찌면 살아남기 위한 각자의 투쟁을 이어갑니다. 그중 조혼 풍습을 가진 나라에 사는 라피타는 친구들과 함께 작은 마을들을 직접 돌아다니며 아동 결혼 근절에 대한 인식을 만들기 위한 설득을 해나갑니다. 종종 사람들은 묻습니다. “너처럼 어린 애가 왜 이런 일을 하니? 이걸 네 일이 아니야.” 하지만 라피타는 말합니다. “아뇨, 이걸 우리가 당면한 문제이며 우리의 일입니다. 우리는 수많은 소녀가 여자라는 이유로 이런 일을 겪지 않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우리는 여성이지만 동시에 청소년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페미니즘만으로는 여성 청소년의 삶이 설명되지 않는 순간이 있습니다. 교차하는 그 정체성은 언제나 다종의 차별을 맞닥뜨리게 되고, 그 차별을 하나의 근거로만 설명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청소년으로서, 여성으로서, 걸페미니스트가 되고자 하는 이유입니다.

또 다른 언어를 쓰고, 다른 문제를 맞닥뜨리고 살아가는 한국 사회의 걸페미니스트들 역시 다종의 차별에 맞서 이 땅에서 살아가기 위해 분투 중이라고 생각합니다. 차별받지 않은 너희 세대가 왜 나서는지, 아직 미성숙한 청소년이 왜 나서는지 세상은 여전히 샷대질합니다. 하지만 라피타의 말처럼 여성에 대한 폭력은 우리가 당면한 문제이며, 우리의 일입니다. 그 어떤 이유로 나의 싸움을 보류하는 것이 아니라 이곳에서 여성 청소년으로 사는 우리가 싸우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분투 중인 서로가 만나 우리의 힘을 길러보려고 합니다. 하지만 세상은 거대하고, 우린 작고 약하기에 손을 잡고 싸울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이 자리에 모인 사람들이 서로의 얼굴을 보고, 이야기를 나누며 힘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살아가는 대신 살아남게 만드는 이 세상과 맞서기 위해 출발해봅시다!

.....

1강_ 핑크페미 : 우리의 페미니즘을 찾아 나서다

어느 날, 페미니스트 활동가 엄마를 둔 딸이 지금까지 엄마의 것으로만 여겼던 페미니즘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기 위한 길을 나섭니다. 어릴 적 딸은 서운했습니다. ‘엄마는 왜 엄마의 역할을 소홀히 하지?’ 동시에 반대의 질문을 던지기도 했습니다. ‘페미니스트 활동가가 왜 시댁에 가서는 순순히 며느리 노릇을 하지?’ 그리고 질문은 자신에게도 돌아옵니다. ‘분홍색을 좋아하는 나는 페미니스트가 될 수 있을까?’ <핑크페미>속 이런 고민은 우리에게도 그리 낯설지 않습니다. 페미니스트로서 살고자 마음을 먹은 순간부터 늘 따라오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페미니스트가 된다는 건 무엇일까요. 그리고 대체 어떻게 해야 우린 페미니스트일 수 있을까요?

2강_ 안티페미 출몰구역 : 그들의 논리에 반박하는 법

인터넷상에서 꼴페미를 욕하고, 페미나치를 운운하던 사람들은 유튜브의 시대에 발맞춰 영상 속에서 페미니즘에 대한 가짜뉴스와 비난을 서슴지 않습니다. 이런 식의 혐오적 언어에 너무나 익숙한 우리야 콧방귀를 끼지만, 그런 정보를 접한 사람들을 현실에서 마주치게 될 가능성에 걱정이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스스로 안티페미라고 말하는 사람 혹은 그 이야기를 전하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어떤 이야기로 그 말들에 반박하고 상대를 설득하며 잘 싸워나갈 수 있을지 함께 준비해보도록 해요.

3강_ 소녀, 연애에 사로잡히다 : 우리는 잘 연애할 수 있을까?

우리는 입버릇처럼 말합니다. ‘아, 연애하고 싶다.’ 그렇게 연애의 달콤함을 그리며 나와 그 말랑거리는 감정을 나눠줄 상대를 찾지만, 쉽지는 않습니다. 페미니즘이라는 빨간 약을 삼켜버린 우리는 보통의 연애에서 사람들이 취하는 태도를 견딜 수 없게 되어버렸는지도 몰라요. 그렇게 상처받고도 우리는 외로움에 몸을 떨며 또다시 누군가와 긴밀한 관계를 맺고 싶어 하게 되겠지요. 그렇다면 대체 우리가 원하는 연애는 무엇인지, 또 어떤 연애관이 우리에게 유리할 수 있을지 고민하는 시간을 가져보는 건 어떨까요?

4강_ 빨간 신호등 : 여성을 판단하는 일상적이고 폭력적인 방식

2018년 한 해 동안 #MeToo 해시태그를 달고 수많은 여성들이 자신의 성폭력 피해를 드러내는 폭로들을 쏟아냈습니다. 크고 작은 미투들이 쌓여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 한국 사회의 성폭력 문화에 대한 문제의식이 퍼져나갔습니다. 하지만 성폭력을 가해자와 피해자 개개인의 문제로 파악하는 많은 순간에 성폭력을 가능하게 하는 구조는 용의 선상에서 유유히 빠져나갑니다. 이 구조를 박살 내기 위해서 새로운 렌즈를 통해 성폭력을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남을 수 있도록….

5강_ 페미걸스, girl connected

영화 <페미걸스>에 등장하는 5명의 소녀는 자신이 처해있는 상황과 주어진 조건 속에서 그곳에 필요한 싸움을 만들어갑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 역시 여성으로, 청소년으로 우리에게 가해지는 폭력에 맞서 싸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때로는 그 싸움이 외롭고 힘들기도 하지만, 고개를 돌렸을 때 바라볼 서로가 있다면 조금 덜 외롭고, 조금 더 힘이 나는 싸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나는 약하지만, 우리는 강하다는 말을 믿고 또 믿으며 그 열굴을 만들어봅시다.■

<h1>영화</h1> <h2>고등</h2>	<p>그것, 보이지 않는 공포 : 영화라는 미궁 속으로(5강)</p> <p>★ 영화적 상징의 라비린토스를 함께 헤쳐 나가는 인문학 원정대</p>
참가자	17~19세 고등부 청소년
일시 및 장소	2020년 1월 13~17일, 오후 3시 30분~5시 30분, 교육공동체 나다
특이사항	각 강좌 제목에 적합한 영화를 보고 와 주세요. (이번 강좌에서 다루는 영화들은 잔인하고 폭력적인 장면을 다수 포함하고 있습니다. 신청 시 이 점을 고려해주세요!)

지난여름 한국 사회의 고달픈 삶을 그린 영화들을 보고 이야기를 나누었던 시간이 끝난 후 많은 참가자가 겨울에도 영화를 다루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남겼습니다. 청소년들의 제안을 언제나 소중히 받아들이는 민주적 공동체 나다에서는 이번 겨울, 세계의 모순을 날카로운 상징의 칼로 베어내 그 단면을 보여주는 국외 영화들 5편을 선정해 특강을 구성하였습니다.

영화를 비롯해 미디어를 통해 우리에게 전해지는 수많은 이야기(text)는 세계와의 불화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중 대다수는 갈등과 다툼을 일으키는 문제적 대상(어떤 인물이나 집단, 혹은 초자연적 존재)을 직접 제시하여 쉽게 감정을 이입할 수 있게 하고 극적 재미를 끌어 올립니다. 하지만 그것이 모호하든 구체적이든 심지어 모두가 납득할 만한 세상 악랄한 빌런을 등장 시켜 모든 문제가 그놈 때문이라고 말하는 단순한 구도를 가진 영화를 보게 된다고 해도 그 악마를 만들어낸 것은 부모가 아니라 이 사회의 구조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완전히 부정할 수 있는 관객은 그리 많지 않아 보입니다. DC 유니버스에서 가장 지명도 높은 빌런 조커의 탄생을 다룬 영화에서 조커는 빌런이기 이전에 이 세계의 날 선 시선에 끊임없이 상처받고 살아가는 유약한 존재였습니다.

무언가의 정체를 정확히 모를 때 우리는 대명사를 써서 그 무언가를 가리킵니다. 그 무언가가 있다는 증거-불화와 갈등은 분명히 존재하기에 우리는 그것이 있다는 걸 알지만 그것이 정확히 무엇인지 말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어쩌면 사회의 문제를 진단할 때 흔히 등장하는 개념인 구조, 권력, 국가 같은 단어들은 그 모호함에 있어서 ‘그것’과 그리 다르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그것’의 정체에 다가가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것’에 대하여 조금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는 것뿐일 지도 모릅니다. ‘그것’이 있다는 증거는 여기저기에 널려 있습니다. 언제부터 내 속에서 자라났는지 모를 원인 모를 공포나 나도 모르게 빠져나오는 이유 없는 실소에도 ‘그것’은 흔적을 남겼습니다. 그 흔적을 기억해내고 연결 지어서 만든 우리의 이야기는 ‘그것’이 만들어낸 혼돈의 라비린토스를 빠져나올 수 있는 실타래가 되어줄 것입니다.

.....

1강_ 그것 “우린 모두 여기 아래에서 떠다녀.”

당신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벌레나 파충류? 귀신이나 살인마? 아니면 높은 곳이나 빠족한 것? 우리들 대부분은 무언가를 두려워한다고 말하지만, 우리가 두려워하는 그 이름은 사실 ‘그것’이 모습을 바꾸어 나타난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것’, 당신의 과거 어느 시간에 슬며시 나타나 어느새 당신 속에 자리 잡은…

2강_ 판의 미로 “세상은 동화 속 요정 이야기와는 다르단다.”

1944년 스페인 내전은 끝났지만 산속으로 숨어들어간 빨치산과 정부군의 전투가 여전히 이어지던 그 시절, 소녀 오펠리아는 현실을 잊으려 자신만의 상상의 세계를 꿈꾸었습니다. 그러나 오펠리아의 환상 속으로 스멀스멀 현실이 기어들어 옵니다. 환상은 피로 물들고 비로소 오펠리아는 자유로워진다는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3강_ 겟 아웃 “네 눈을 줘. 내가 보는 것들이 갖고 싶어.”

신체 강탈자를 다룬 영화는 많았지만, 이 영화는 특별했습니다. 다른 영화들 속의 강탈자는 악령이거나 외계인이었지만 이 영화의 강탈자들은 내 이웃들입니다. 아, 물론 이웃들이라고 해도 피부색은 아주 다릅니다. 하얀 인간들에게 신체를 강탈당한 검은 인간들의 이야기는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4강_ 조커 “난 내 인생이 비극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X 같은 코미디였어.”

엄청난 파워나 신비한 초능력을 가진 빌런도 아닌데 어느샌가 배트맨의 빌런들뿐만 아니라 DC 코믹스를 통틀어 가장 매력적인 악당으로 성장한 조커. 사실 호아킨 피닉스의 영화 <조커>가 나오기 전에도 조커는 이미 충분히 매력적인 악당이었습니다. <조커>는 왜 사람들이 그에게 매료되었는지를 친절하고 폭력적으로 알려줍니다.

5강_ 어느 가족 “폭죽은 보이지 않으니까 소리를 보는 거야.”

할머니와 엄마와 아빠, 두 딸과 한 아들, 좀 가난하긴 하지만 꽤 화목해 보였던 이 가족의 문제는 무엇이었을까요? 할머니의 연금에 기대어 사는 게 문제였을까요? 가끔 아빠와 아들이 도둑질을 하는 것이었을까요? ‘가슴을 흔들며’ 돈벌이를 하는 고등학생 큰딸이 문제

였을까요? 이 가족이 결국 뿔뿔이 흩어지게 된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가족 중 누구도 피가 섞이지 않았기 때문이죠. “낳으면 다 엄마인가요?”■

■교육공동체 나다 2020년 겨울특강 소개 마침■